

출장결과보고
2018. 12. 18

중국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북경시농림과학원 MOU 체결식 참석
출장결과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중국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세미나 / 북경시농림과학원 MOU 체결식 참석
2. 출장자: 김태훈 기획조정실장, 김용렬 미래정책연구실장, 대외협력정보실 최병용 전문원(KREI), 최정섭 교수(목포대학교)(총 5명)
3. 출장 지역: 중국 북경
4. 출장 기간: 2018. 12. 10(월) ~ 12. 12(수) (2박 3일)
5. 출장 일정: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2018. 12. 10 (월)			
도착및출국수속	13:00-14:00	인천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출국	15:05-16:25	인천 ↔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아시아나 OZ335
입국수속	16:25-17:00	서우두 공항 도착	
이동	17:00-18:00	이동(서우두 공항 ↔ 숙소)	
숙소 체크인	18:00-18:30	숙소 체크인 (Hyatt Regency Beijing Wangjing)	
2018. 12. 11 (화)			
이동	09:00-10:00	이동(숙소 ↔ 중국사무소)	
업무협의회	10:00~11:30	기념세미나 및 MOU 체결식 관련 업무협의회	
중식	11:30-12:30	중식	
[10주년 기념세미나 및 MOU 체결식]			
개회식	14:00-14:30	○ 개회사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축사 - 리청구이 북경시농림과학원 원장	
MOU 체결식	14:30~15:00	○ MOU 체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북경시농림과학원(BAAFS) 간 연구협력협약 체결 - 협약서 서명, 기념사진 촬영	

주제1 향촌진흥 '산업'	15: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즈슝(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서기)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촌진흥의 토지와 노동의 동태적 정합 탕중(唐忠) 중국인민대 농촌발전학원 원장 - 한국의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과 과제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16:0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오핑(李锁平) 꿀벌연구소 부소장 한이권(韓一軍) 중국농업대 교수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휴식시간	16:30-16:40	휴식시간	
주제2 향촌진흥 '민생'	16:40-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정섭(목포대학교 교수, 전 KREI원장)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성공적 정착 요인 안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지주식합작과 6차산업 융합발전 쑤동성(孫東升)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 연구소 부소장 	
	17:4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궈페이(郭沛) 중국농업대 경제관리학원 원장 	
폐회식	18:00-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리창구이 북경시농림과학원 원장 	
저녁만찬	19:00-20:00	저녁만찬	
2018. 12. 12(수)			
숙소 체크인아웃	09:00	숙소 체크인아웃	
이동	09:00-10:30	베이징시 따싱구(大興區) 소재 야루꾸(呀路古)열대식물원	
필드트립	10:30-11:30	열대식물원 내 온실 및 6차산업화 현장	
점심식사	11:30-13:00	열대식물원 내 식당	
필드트립	13:30-14:30	열대식물원 내 현장 답사	
이동	14:30~15:30	베이징 서우두 공항 이동	
출국수속	15:30~16:30		
출국	18:50~21:45	베이징 → 인천 이동	OZ336

※ 최정섭 교수는 21시 55분 출발 대한항공 KE854편 이동

II 출장 결과

1. 북경시농업과학원(BAAFS: Beijing Academ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ciences) MOU 체결

□ 북경시농림과학원

- 1958년 설립, 14개 주요 연구센터 운영으로 농업, 산림, 축산, 어업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및 농업과학의 발전을 선도
 - 정규직 1,152명, 박사급 400여명 연구 활동
 - 중국의 도시 근대 농업 발전에 대해 지침과 지원을 제공
 - 프랑스, 캐나다 등 100 여개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에서 30개국 이상과 협력해오고 있으며, 20여 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협력협약 체결
 - 중국의 5개년 계획 제12선언 이후 국가 및 지방 자치 수준에서 2,033개 프로젝트 수행
 - 3,000여가지의 과학 성과 및 지적재산권, 309개의 새로운 품종 등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 협력 활용도 높음

□ 주요 협약 내용

- 연구협력관계 수립 통해 양 기관의 공동 이익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 상호 관심분야 공동 연구 수행
 - 공동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 기타 양 기관 공동 관심분야의 협력

2. KREI 중국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세미나 개요

- 주제: 한국과 중국의 '농촌진흥' 비교 및 교훈
- 일시 및 장소: 2018.12.11. 북경시농림과학원
- 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북경시농림과학원(BAAFS)

□ 발표내용

(세션1: 향촌진흥 “산업”)

좌장: 뚜즈슝(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서기)

○ 농촌진흥의 토지와 노동의 동태적 정합

(탕중 중국인민대 농촌발전학원 원장)

- 중국농업은 현재 극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의 소부문화되고 공업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화되고 있음. 자급형 농업은 이미 사라지고 전부 상업농업화 됨
- 농촌진흥과 관련한 문제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농촌 인구의 회귀가 필요한가 아니면 더 감소해야 하는가
 - 7%의 경지로 19%의 인구를 잘 부양할 수 있는가
 - 사유재산권이 토지와 노동의 동태적 정합에 더 유리한가
 - 도시자본 하향은 농촌 발전의 관건인가
- 노동력이 비농업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 순유입할 수 있는가.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정부간섭 없다면 시장시스템은 반드시 농업 노동력 공급 부족 야기하게 될 수도
 - 농업은 노동력을 수출하는 분야가 되었음,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업을 떠나려고 함
 - 농업을 떠날 능력이 없는 노동력은 계속 농업에 종사

- 회원권과 재산권의 평형이 필요
 - 토지는 영원한 농업의 생명선이지만, 반드시 농민의 생명선은 아님
 - 회원권이 재산권을 결정, 집체소유, 회원이 기한에 따라 보유 등 토지권은 분산하고 경영도 적당히 집중해야
- 건설용지는 수요 통제, 공급 완화, 도시주택원가 하향이 필요
 - 건설용지 지표관리가 필요, 도시건설용지는 항상 부족상태에 처해 있고, 농업발전 역시 지표가 필요하지 않음
 - 도시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야 함, 청년이 강해야 국가가 강함, 집세가 중산층 어렵게 하면 소비 업그레이드가 어려움, 주택 무희망(불안)은 국가 장기발전에 불리
 - 수요는 통제하고 공급은 적당히 완화해야

○ **한국의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과 과제**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 국민들이 생각하는 핵심 농정과제는 소득 및 가격안정,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혁신성장,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임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혁신을 가장 중요한 농정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외 농업인은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에 관심이 높음
 - 일손부족, FTA 등 개방 확대, 생산비 증가는 경영 위협 요인
- '활력 넘치는 일터' 목표 아래 특화산업 육성과 생활·문화 기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이외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이 추진 중
 - 사회적경제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확산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 중심의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형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 · 숙박 · 체험을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농촌 활력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계획
 -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해, 6차산업 우수 경영체로 육성하고 6차산업확산의 주체로 활용 (2018년 8월 기준 1,512개 경영체 인증)
 - 실질적 정부 지원 미흡, 정부사업에 대한 정보 확보 유리 등 의견
-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기존 제도와 다른 점? 기존 투자한 지역에만 집중투자되는 경향 의견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서 6차산업화 추진하는 주체들의 공동사업 촉진 위해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의 생산활동 지원, 공동 홍보·마케팅 등 경영활동 지원
- 농업인이 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의견을 들으면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의 확보를 위해'가 가장 많아(43%)
 - 가장 어려움 점은 '판매망 확보 어려움', '시설·장비 구매비용 부담'
- 지역 내 지원기관, 혁신주체, 경영체 간 협의체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거래관계 외에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성장하고 있음

-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형성된 협력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
-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지원은 효과성 떨어져, 지역단위의 계획 수립이 중요

(세션2: 향촌진흥 “민생”)

좌장: 최정섭(목포대학교 교수, 전 KREI 원장)

○ 한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성공적 정착 요인

(안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950년대까지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다른 개발국가처럼 농업 노동자가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며 1990년대 후반 이촌향도 시작
 -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는 농촌이 인구의 70% 이상
 - 경제개발계획(1960)년대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시작
 - 농촌인구 1980년 42.7%, 1990년 25.6%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00년 20.3%, 2010년 18.0%로 감소폭은 축소
 -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지속
- 2000년대 후반 주요 귀농인구의 연령층은 50대로, 대부분 농촌 출신인 한국의 Baby boomer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임
- 2012년 이후 농촌생활 선호가 가장 중요한 귀농귀촌 동기로 나타남

동기	2012	2013	2014	2015	평균
농촌 생활 선호	28.1	28.8	28.3	32.4	29.4
농사	17.3	20.5	20.7	17.8	19.1
도시생활에 회의	15.9	14.9	11.5	16.6	14.7
건강	12	10.4	11.3	9	10.7
가족과 살기 위해	8.6	8.6	6	6.8	7.5
실직과 사업 실패	6.6	4.8	6.9	4.5	5.7
농사를 잇기위해	5.3	4.9	4.8	4.2	4.8
도시의 높은 물가	1.1	2.5	2.8	2.5	2.2
자녀 교육	1.1	0.9	0.3	0.4	0.7
기타	4	3.7	7.5	5.8	5.2

-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 생활에 회의, 건강, 가족과 살기 위해, 실직과 사업실패 순
- 해당 동기는 귀농귀촌인의 연령에 따라 다름, 나이가 들수록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생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며 농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함
- 교육수준일 높을수록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귀농귀촌을 함
- 성공적 정착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공유
- 개인, 가족 요인...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한 귀농귀촌인일수록 성공적으로 정착
- 실업, 사업실패로 이주하면 성공적 정착에 부정적 영향
-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끼면 성공적 정착에 긍정적 영향
- 전원생활을 추구하면 성공적 정착에 영향
- 가치추구를 위해 이주하면 성공적 정착에 영향
-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없고, 지역에 참여해 지역에 동화될수록 성공적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줌
- 정부 지원 가운데는 주택지원만 긍정적 영향을 줌, 이는 귀농·귀촌인에게 주택문제가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함
- 결론적으로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외에 비경제적 동기가 중요하게 나타남
- 연구 결과는 농촌 생활과 대안적 가치 추구가 성공적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면 실업이나 사업실패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 성공적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실직과 사업실패로 이주한 경우 수입, 생활비, 거주환경 등 경제적 상황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

-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인은 농촌을 도시생활의 대안적인 삶의 형태로 선택함
 - 귀농귀촌인은 동기별로 유형화가 가능하고, 유형화에 따른 지원을 해야, 동기별로 생계형, 대안가치형, 은퇴전원형, 경제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 제안
 - 주택지원과 같은 귀농·귀촌인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토지주식합작과 6차산업 융합발전: 식량안보와 식량생산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적인 방안
- (쑨둥성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부소장)
- 12년 연속 생산량 증가하고 있어 곡물의 기본적 자급에 있어서는 안정적이나, 식량재배 비교수익이 적어 농가소득증대실현에는 어려움, 식량안보 위험 여전히 존재
 - 토지주식합작과 1,2,3차 산업 융합 발전 등의 방향 필요
 - 헤이룽장성의 경우 농기계합작사에 의존, 토지주식합작경영을 전개
 - 농가토지경영권 토지의 자본 환산으로 출자해 현대농기계합작사 통해 토지를 대규모로 집중하고 기계화·규모화 경영 실시→ 식량생산량증가, 제품품질제고, 농가수익증대 효과
 - 커산현 런파 농기계 합작사는 가입 회원수 1,014호 공동경영경작지 규모 6만무 초과, 우창시 왕자툰 합작사 가입 회원수 2,786호 등
 - 헤이룽장성의 경우 합작사의 규모효과를 통해 식량생산 비용을 절감, 합작사의 500그램 당 옥수수 재배수익은 기존 농가 대비 0.1위안 많음
 - 수익의 경우도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농가수익을 보장, 최저수익보장 + 2차 수익배당 + 국가보조, 우창시 왕자툰합작사 회원의 이익배당금은 1,603.99위안에 달함

- 2·3차산업까지 확장하며 농가소득증대를 추진, 단순생산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판매까지 추진
- 커산현 런파농기계 협작사는 농업재배를 하며 감자번식, 옥수수 가공을 하는 '런파녹색농원' 브랜드 확장, 2013년 수익은 무당 900위안 정도



런파녹색농원 브랜드

- 우창 평링 협작사는 2016년 재배구조조정과 청저(靑儲)옥수수만으로도 일반 옥수수 대비 무당 200위안 수익증대 실현, “번착” 콩기름 생산라인 “노지부서기” 브랜드 등록 판매 등



- 쓰촨성 충저우 시의 경우 농업공동경영체 구축 탐색 방법 사용
- 토지주식협작사, 농업직업경영자, 농업사회화서비스가 농업공동경영체로 구축, 토지주식협작가 246개, 협작사 가입규모 31.6만무로 전시 경작지 규모의 60%
- 윈스톱식 사회화서비스 슈퍼를 구축하고 농업생산의 일괄 서비스를 실현
- 협작사 우위를 발휘해 식량증산효과를 실현, 규모화·기계화·표준화 등 통해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가토지경영수익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의 노동종사 이후 걱정을 해결, 농업노동력은 이후 합작사내 취업하거나 창업 혹은 타지역 노동 종사
- 2016년 전시의 농촌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17,896위안으로 전국 평균 대비 45% 높음.
- 쓰촨성 충저우 시... 현대농업경영구조 혁신,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발전 인도
- 용두기업이 기술·자금 등을 출자하여 토지주식합작사를 설립, 식량 유효규모화 재배, 벼와 물고기 입체 양식, 제품전자상거래판매, 레저관광농업 등 '전산업체인 발전' 도모
- 토지주식합작사의 경우 농가의 주체적 지위를 지속 견지할 수 있음, 농가가 합작사 회원인 주체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농가 토지도급 권익과 기대수익을 안정화하며, 합작사경영관리 과정에서 농민의 의견을 확실히 존중
- 이익배분의 경우 농가 회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우수한 경영관리인재 선발과 적재적소 배치 통해 합작사의 지속 발전 추구 필요
- 토지주식합작사 발전에 걸림돌도 있음, 운영관리구조가 아직 정비 되어 있지 않으며, 농업금융신용대출에 대한 지지력도 부족함,

도급도지경영권을 담보로 금융융자를 진행해 농업경영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적극 개입하지 않음

- 이에 토지주식합작사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금융적지지 확대가 필요, 농업 전문인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학생의 귀향창업 장려 및 성공경험 정리도 계속되어야 함

3. 농업 · 농촌 현장 견학

□ 개요

- 일시: 2018.12.12.(수) 10:30~14:30
- 장소: 야루구(呀路古)열대식물원
- 위치: 북경시 대흥구 장자영진
- 부지면적: 600묘

□ 北京呀路古熱帶植物園 (beijing ulugu tropical botanical garden)

- 북경시 대흥구(大興) 장자영진(長子營鎮)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시 최대 열대식물원으로 국가3A급 관광지. 2010년 10월 개원하였으며, 부지면적 600묘(畝), 투자금액 4억위안임
- 열대식물관광, 열대과일 수확체험, 농업현장 학습, 회의, 관광레저 등 6차산업 활성화 되어 있는 식물농원임
- 야루구열대식물원에는 열대과일, 열대식물(관상용, 약용, 식용), 소멸위기 열대식물 등 수천종 열대 식물이 있으며, 열대식물 수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또한 식물원 내에 고목(古樹)관, 민족관람관, 공룡관, 공작관, 아동미궁, 수풀탐험관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 이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 등은 기내식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관련 사진



KRE-BAAFS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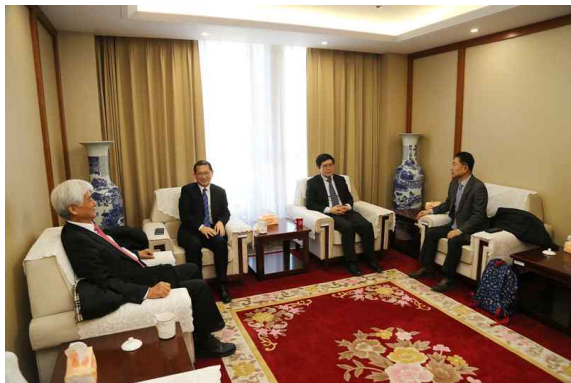
KRE-BAAFS MOU 체결



KRE-BAAFS MOU 체결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리청구이 북경시농림과학원 원장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뚜즈슝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서기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최정섭 목포대학교 교수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탕중 중국인민대 농촌발전학원 원장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한이천 중국농업대 교수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안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사무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쑤둥성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부소장



야루꾸 열대식물원



야루꾸 열대식물원



야루꾸 열대식물원



야루꾸 열대식물원